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41 주차 (17:13~18:9)

(2015년 11월 1일 - 2015년 11월 7일)

(제3권 41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41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11 월 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7:13~21)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13절) 그러나 지금 (νῦν δὲ)
내가 당신에게로 갑니다 (πρὸς σὲ ἔρχομαι)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말합니다 (καὶ ταῦτα λαλῶ ἐν τῷ κόσμῳ)
저희 안에서 나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도록 (ἵνα ἔχωσιν τὴν χαρὰν τὴν ἐμὴν πεπληρωμένην ἐν ἑαυτοῖς)
- (14절) 나는 그들에게 당신의 말을 주었습니다 (ἐγὼ δέδωκα αὐτοῖς τὸν λόγον σου)
그리고 세상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ἐμίσησεν αὐτούς)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οὐκ εἰσὶν ἐκ τοῦ κόσμου)
마치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5절) 저는 지금 당신이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데려가도록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κ ἐρωτῶ ἵνα ἄρ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κόσμου.)
당신이 그들을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ἀλλ' ἵνα τηρήσῃς αὐτούς ἐκ τοῦ πονηροῦ.)
- (16절)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디다 (ἐκ τοῦ κόσμου οὐκ εἰσὶν)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같이 (καθὼς ἐγὼ οὐκ εἰμι ἐκ τοῦ κόσμου.)
- (17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ἀγιάσον αὐτούς ἐν τῇ ἀληθείᾳ.)
당신의 로고스는 진리입니다 (ὁ λόγος ὁ σὸς ἀλήθειά ἐστιν.)
- (18절)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ἀπέστειλα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나 역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καὶ γὰρ ἀπέστειλα αὐτού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 (19절)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καὶ ὑπὲρ αὐτῶν ἐγὼ ἀγιάζω ἑμαυτόν.)
그 결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ἵνα ὅσιν καὶ αὐτοὶ ἡγιασμένοι ἐν ἀληθείᾳ.)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세상으로 보낸 것같이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고, 인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으며, 또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공생애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따라서 18 절의 앞부분인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것 같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 절 후반절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 역시 저희들을 이 세상으로 보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냈다’ 라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 ‘아페스테이라’ (ἀπέστειλα)는 ‘아포스텔로’ (ἀποστέλλω) 의 aorist 형입니다. 이는 행위가 완결되었음을 나타내는 동사형으로 이미 보내는 행위가 종료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줄곧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했습니다. 물론 잠시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한 적은 있지만(눅 9:1~6, 눅 10:1~24), 그것은 일종의 연습에 해당하는 것이지 본격적인 파송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안 있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미’ 세상으로 파송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파송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파송’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물리적으로 다른 어떤 장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송이란 단순히 다른 장소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들의 일터에서 불러냈습니다. 베드로 형제와 요한의 형제는 어부로서 살던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리 마태는 세금을 거두던 일터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갔고, 그들을 직접 불러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사도로 임명합니다. 그들이 사도로 임명받은 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예수님이 열 둘을 사도로 임명하신 내용에 대해 마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²“열 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³“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⁴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⁵예수께서 이 열 둘을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⁶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⁷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⁸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10:1-8).

여기서 우리는 “제자”(μαθητής; 마테테스)라는 단어와 “사도”(ἀπόστολος;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인 셈입니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순종함은 물론 삶 전체를 그와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들은 삶의 우선 순위가 이전과는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체득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사도는 제자와는 다른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열 둘을 택하여 예수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열 둘 외에는 원칙적으로 사도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누가 파송을 했든 안 했든 그것이 사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사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 외에 사도로 칭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단 두 사람만 존재했습니다. 한 명은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기 위해 세운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공동체를 떠난 가룟유다 대신 제비 뽑아 임명된 맛디아입니다. 이 맛디아를 뽑을 때 베드로는 사도의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행 1:21~22).

또 열 둘 외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사도로 인정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보낸 대부분의 편지 인사말에서 자신이 사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갈 1:1).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사람들이 임명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도권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린도 후서에는 그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그를 사도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공격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고후 11:5).

문제는 오늘날입니다. 오늘날에는 ‘제자’라는 단어와 ‘사도’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사도는 아닙니다. ‘신사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사도’라는 직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만듭니다. 그냥 ‘제자’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사도’라는 말을 써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현대 사회에는 사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사를 가진 제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사도들이 누렸던 모든 능력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주어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려 완성된 성경을 통해 수많은 것들이 계시되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각자 맡은 직분과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요. 1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단계를 거치셨습니다. 왜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셨을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들 편에서는 그 과정이 없으면 인간들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예수님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거룩해진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것이 은혜요 구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20절) 나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ύτων δὲ ἐρωτῶ μόνον.)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ἀλλὰ καὶ περὶ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ὰ τοῦ λόγου αὐτῶν εἰς ἐμέ.)
- (21절)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ἐν ὧσιν.)
마치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듯이 (καθὼς σύ, πάτερ, ἐν ἐμοὶ καὶ γὰρ ἐν σοί.)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ἵνα καὶ αὐτοὶ ἐν ἡμῖν ὧσιν.)
이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ἵνα ὁ κόσμος πιστεύῃ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22절)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왔습니다
(καὶ γὰρ τὴν δόξαν ἣν δέ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 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ἵνα ὧσιν ἐν)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καθὼς ἡμεῖς ἐν·)
- (23절) 내가 저희들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서 (ἐγὼ ἐν αὐτοῖς καὶ σὺ ἐν ἐμοί.)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ἵνα ὧσιν τετελειωμένοι εἰς ἓν.)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ἵνα γινώσκῃ ὁ κόσμος.)
당신이 나를 보냈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음을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καὶ ἠγάπησας αὐτούς.)
마치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ἠγάπησας.)
- (24절) 아버지여 (Πάτερ.)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것을 원합니다 (ὁ δέδωκάς μοι, θέλω)

-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도록 (ἵνα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καὶ αὐτοὶ ᾤσιν μετ' ἐμοῦ,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도록 (ἵνα θεωρῶσι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ἐμὴν,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그것을
 (ἦν δέδοκός μοι ὅτι ἠγάπησάς με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πάτερ δίκαιε,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σε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ἐγὼ δέ σε ἔγνω),
 저희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καὶ οὗτοι ἔγνω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26절) 내가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καὶ ἐγνώρισα αὐτοῖς τὸ ὄνομά σου καὶ γνωρίσω),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역시 저희 안에 있을 겁니다
 (ἵνα ἡ ἀγάπη ἣν ἠγάπησάς με ἐν αὐτοῖς ἢ καὶ ἐν αὐτοῖ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21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은 계속됩니다. 헬라어 원문은 20 절과 21 절이 따로 나뉜 두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듯이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헬라어는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Οὐ π¹ερὶ τούτων δὲ ἐρωτῶ μόνον, (나는 그들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ἀλλὰ καὶ περὶ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요청하는 것입니다)
 διὰ τοῦ λόγου αὐτῶν εἰς ἐμέ,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ἵνα πάντες ἐν ᾧσιν,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καθὼς σύ, πάτερ, ἐν ἐμοὶ καὶ ἐν σοί,
 (마치 당신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는 것처럼)
 ἵνα καὶ αὐτοὶ ἐν ἡμῖν ᾧσιν, (역시 그들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ἵνα ὁ κόσμος πιστεύῃ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이 믿을 것입니다)

위 문장은 하나의 주절과 세 개의 결과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절 주절이고 21절이 결과절인 셈입니다. 우선 주절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A뿐만 아니라 B도’ (not only A but also B)라는 문장 구조로 쓰였습니다. 헬라어 본문 중 ‘Οὐ...μόνον,ἀλλὰ καὶ’ (오우 모논알라 카이)가 그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하신 모든 일의 성과를 단순히 3년간 자신과 함께 한 제자들뿐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 이 땅에 형성될 예수 공동체, 즉 교회들을 위해서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요청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청한 결과로 믿는 사람들과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은 3개의 연속되는 ‘하나’ (iva) 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절’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일어날 첫번째 일은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단지 한 그룹으로 모인다거나 이질적인 사람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라는 말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믿는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⁵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⁶하나님도 하나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엡 4:4-6).

바울은 일곱 번 연속적으로 ‘하나’라는 말을 사용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과 교회는 뿔뿔히 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된다는 말은 존재론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 내부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다 달라서 늘 갈등이 존재하는데 단지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라는 말은 만장일치를 의미하거나 획일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활동했던 초대 교회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분리와 갈등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이었기에 특별히 모범이 되는 교회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 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여러 분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상대방을 심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파와 무할례파가 다투었고, 로마 교회도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에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든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교회 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신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상존하고 심지어 다툼과 나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을 획일화 하는 곳이 아니라 생각이 다양하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⁴⁵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⁴⁶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⁴⁷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⁴⁸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빌 1:15-18).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일어날 두 번째 일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 하늘 어딘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멀리 계신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며 자신을 이런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확신하다면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걸 알게 되지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의 요청으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세 번째 일은 세상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전도로 세상에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의 내용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¹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너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¹⁵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¹⁶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¹⁷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찌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벧전 3:14-17).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20절) 나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ύτων δὲ ἐρωτῶ μόνον.)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ἀλλὰ καὶ περὶ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ὰ τοῦ λόγου αὐτῶν εἰς ἐμέ.)
- (21절)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ἕν ὦσιν.)
마치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듯이 (καθὼς σύ, πάτερ, ἐν ἐμοὶ καὶ γὰρ ἐν σοί.)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ἵνα καὶ αὐτοὶ ἐν ἡμῖν ὦσιν.)
이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ἵνα ὁ κόσμος πιστεύῃ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22절)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왔습니다
(καὶ γὰρ τὴν δόξαν ἣν δέ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 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ἵνα ὦσιν ἕν.)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καθὼς ἡμεῖς ἕν.)
- (23절) 내가 저희들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서 (ἐγὼ ἐν αὐτοῖς καὶ σὺ ἐν ἐμοί.)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ἵνα ὦσιν τετελειωμένοι εἰς ἕν.)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ἵνα γινώσκῃ ὁ κόσμος.)
당신이 나를 보냈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음을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καὶ ἠγάπησας αὐτούς.)
마치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ἠγάπησας.)
- (24절) 아버지여 (Πάτερ.)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것을 원합니다 (ὁ δέδωκάς μοι, θέλω)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도록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αὐτοὶ ὦσιν μετ' ἐμοῦ,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도록 (ἵνα θεωρῶσι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ἐμὴν,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그것을
 (ἦν δέδοκός μοι ὅτι ἠγάπησάς με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πάτερ δίκαιε,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σε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ἐγὼ δέ σε ἔγνω),

저희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καὶ οὗτοι ἔγνω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26절) 내가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καὶ ἐγνώρισα αὐτοῖς τὸ ὄνομά σου καὶ γνωρίσω),

당신이나를 사랑한 그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역시 저희 안에 있을 겁니다

(ἵνα ἡ ἀγάπη ἣν ἠγάπησάς με ἐν αὐτοῖς ἢ καὶ ἐν ἐμο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23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앞서 하신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며, 그때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며, 이제 곧이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일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도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고 경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마다 제각각 경험한 것이 다르다 해도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 보여 준 모든 이적들은 그분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서였지 자신을 믿는 사람들더러 그것을 본받아 따라 하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부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왔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진 용서와 부활로 만들어진 새생명의 의미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죽은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매우 명료하고 쉽습니다. 그것이 전부이니깐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갈 6:14).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 2:2).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부끄러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용서가 주는 진정한 기쁨과 능력에는 별 관심이 없고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 확인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적에 매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경험이나 능력을 내심 자랑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말뿐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보다는 내가 남들이 갖지 못한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기 쉽습니다. 그 때문에 불행하게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용서가 주는 능력도 무시합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억지로 짜내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우리로 하여금 남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가능토록 하기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나요? 그 용서로 남을 용서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 움직인다는 증거가 됩니다.

24 절을 읽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듭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도록,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도록, 당신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그것을, 나에게 주어 왔던 것을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다음과 같이 전형적인 교차배열구조(Chiasmic Structure)로 되어 있습니다.

- A: Πάτερ, ὁ δέδοκάς μοι, θέλω (아버지여! 나에게 주어 왔던 그것을 내가 원하나이다!)
- B: ἵνα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καὶ αἱνοῦν ὡσιν μετ' ἐμοῦ,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도록)
- B: ἵνα θεωρῶσι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ἐμήν,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도록)
- A: ἦν δέδοκάς μοι ὅτι ἠγάπησάς με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당신이 창세 전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왔던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어왔던 것, 창세 전부터 사랑했기 때문에 주어 왔던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24 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들을 받아 줄 것을 정중히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신분으로 말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하늘 나라의 백성 정도의 신분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단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수준으로 받아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달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¹²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¹³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¹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¹⁵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¹⁶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¹⁷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2-17).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지로 살든, 고난의 길을 걷든, 환란을 당하든 상관없이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자들은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우리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다는 말이지요. 청년들은 심각한 실업 문제로 신음하고, 청소년들은 오로지 학업에만 내몰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일찍부터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 부양 문제도 심각해져서 갈수록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렇듯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소망 말이지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그렇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묵묵히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한다는 것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7:20~26)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삽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원문해석하기

- (20절) 나는 오직 그들만을 위해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Οὐ περὶ τούτων δὲ ἐρωτῶ μόνον.)
그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ἀλλὰ καὶ περὶ τῶν πιστευόντων διὰ τοῦ λόγου αὐτῶν εἰς ἐμέ.)
- (21절) 그들은 모두 하나일 것입니다 (ἵνα πάντες ἐν ᾧσιν.)
마치 아버지 당신이 내 안에 내가 당신 안에 있듯이 (καθὼς σύ, πάτερ, ἐν ἐμοὶ καὶ γὰρ ἐν σοί.)
그들 역시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ἵνα καὶ αὐτοὶ ἐν ἡμῖν ᾧσιν.)
이 세상이 당신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ἵνα ὁ κόσμος πιστεύῃ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 (22절) 당신이 나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왔습니다
(καὶ γὰρ τὴν δόξαν ἣν δέδωκάς μοι δέδωκα αὐτοῖς.)
그 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ἵνα ᾧσιν ἓν)
마치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καθὼς ἡμεῖς ἓν.)
- (23절) 내가 저희들 안에서 당신이 내 안에서 (ἐγὼ ἐν αὐτοῖς καὶ σὺ ἐν ἐμοί.)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ἵνα ᾧσιν τετελειωμένοι εἰς ἓν.)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ἵνα γινώσκῃ ὁ κόσμος.)
당신이 나를 보냈고,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음을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καὶ ἠγάπησας αὐτούς.)
마치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같이 (καθὼς ἐμὲ ἠγάπησας.)
- (24절) 아버지여 (Πάτερ.)
나는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것을 원합니다 (ὁ δέδωκάς μοι, θέλω)

내가 있는 그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하도록 (ἵνα ὅπου εἰμὶ ἐγὼ καὶ αὐτοὶ ὦσιν μετ' ἐμοῦ,
 저희가 나의 영광을 보도록 (ἵνα θεωρῶσι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ἐμὴν,
 당신이 창세전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주어왔던 그것을
 (ἦν δέδοκάς μοι ὅτι ἠγάπησάς με πρὸ καταβολῆς κόσμου.)

(25절) 의로우신 아버지 (πάτερ δίκαιε,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καὶ ὁ κόσμος σε οὐκ ἔγνω,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ἐγὼ δέ σε ἔγνω),

저희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καὶ οὗτοι ἔγνωσαν ὅτι σύ με ἀπέστειλας.)

(26절) 내가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καὶ ἐγνώρισα αὐτοῖς τὸ ὄνομά σου καὶ γνωρίσω),

당신이나를 사랑한 그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역시 저희 안에 있을 겁니다

(ἵνα ἡ ἀγάπη ἣν ἠγάπησάς με ἐν αὐτοῖς ἢ καὶ ἐν ἐμοί.)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5-2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압니다. 저희들도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당신이 나를 사랑한 그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 역시 저희 안에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그것에 관해 충분히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누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그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세상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며 매일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며, 심지어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로 안수받아 설교를 한다해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신으로 여기며 추종하는 사람들이었지요. 사실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분간하기가 너무도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머릿속에는 다른 하나님이 들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문제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에 속해,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믿는 것처럼 보이나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세계관, 인생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남들에게 율법과 도덕의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쌓아올린 그의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경건

한 행위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으려 하는 모든 시도들은 바리새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장 큰 적이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조차 정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 이 세상에서 큰 축복을 받아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얻어남들보다 훨씬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생각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로 배를 불리면서 부와 종교적 권력을 한꺼번에 누렸던 사두개인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 명예, 건강, 사회적 지위 등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의 기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당시 거지, 장님, 문둥병자, 창녀, 세리 등 소위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자들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마침내 십자가에 못박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데간데 없고 이 세상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도록 만들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어쩌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의 지위나 신앙의 연륜과는 무관하게 말이지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뭘 어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본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며 왜 교회에 다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정말 솔직하게 돌아본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노력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저 평범한 어부요 세리들인 사람들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순간에 모두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일생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깨달아 갔습니다. 물론 그것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 인도하여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26절에서 “내가 저희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알게 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자기 이름을 알게 하실까요?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옅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에 매달리며 늘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던 율이 자신이 겪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사도들도 자신들 앞에 펼쳐진 삶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 장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³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⁵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약 1:2-5).

야고보는 인생에서 만나는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고자 허락하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속에서 끊임없이 계시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펼쳐진 삶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이것이 하루 속히 헤치고 나와야 할 재앙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는 기회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1~9)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Ἰησοῦς)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로 가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σὺ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πέραν τοῦ χειμάρρου τοῦ Κεδρὼν)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κήπος)
그와 그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εἰς ὃν εἰσῆλθεν αὐτὸ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2절)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습니다 ("Ἰδὲ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τὸν τόπον.)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άκις συνήχθη Ἰησοῦς ἐκεῖ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3절) 그러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지닌 채 그곳으로 왔습니다 (ὁ οὖν Ἰούδας λαβὼν τὴν σπεῖραν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ιερέων καὶ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ὑπηρέτας ἔρχεται ἐκεῖ μετὰ φανῶν καὶ λαμπάδων καὶ ὀπλῶν.)
- (4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신 예수님이 (Ἰησοῦς οὖν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ἐξῆλθ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당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τίνα ζητεῖτε;)
- (5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나사렛 예수이다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가] 나다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그를 배반하는 유다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εἰστίκει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μετ' αὐτῶν.)

- (6절) 그가 그들에게 ‘[그가] 나다’라고 말하자 (ὡς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γώ εἰμι.)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ἀπη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καὶ ἔπεσαν χαμοαί.)
- (7절) 그러자 그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πῶς οὖν ἐπηρώτησεν αὐτούς· τίνα ζητεῖτε.)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οἱ δὲ εἶπαν·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 (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그]이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ὅτι ἐγώ εἰμι· εἰ οὖν ἐμὲ ζητεῖτε.)
 이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라 (ἄφετε τούτους ὑπάγειν·)
- (9절) 이는 그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ὃν εἶπεν)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ὅτι οὓς δέδωκάς μοι οὐκ ἀπόλεσα ἕξ ἀπάντων οὐδ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절을 읽으십시오. 장시간에 걸친 고별사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십니다.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시내)를 건너서 어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요한은 그 동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다른 공관복음은 그곳이 겐세마네 동산(마26:36, 막14:32) 또는 감람산(눅22:39)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곳은 감람산 안에 있는 겐세마네 동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의 명칭보다 예수님이 건너 가신 경로인 기드론 골짜기를 오히려 부각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공관복음과 달리 왜 요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닌 그저 지나가는 경로에 불과한 기드론 골짜기를 직접 거론하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기드론 골짜기(또는 기드론 시내)가 구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구(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과 올리브산 사이에 있는 계곡으로 남쪽에 있는 힌놈의 골짜기와 더불어 예루살렘 성의 경계를 가르는 계곡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동쪽 금문(Golden Gate)을 나와 올리브산 내 겐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길이 유일한 지름길이기 때문이지요.

이 기드론 골짜기는 구약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골짜기는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로 나갈 때 건너간 길입니다. 사무엘하15장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²²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사람 잇대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²³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삼하15:22-23).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 기드론을 건너는 순간 그의 수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가 그 골짜기를 건넜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의 왕권이 사실상 빼앗겼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이 이 밤에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갔다고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산나 찬송을 들으며 다윗왕을 잇는 메시아로 화려하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순간 자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을 사실상 모두 내려 놓으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올렸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³⁹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⁴⁰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⁴¹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⁴²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⁴³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⁴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39-44).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분, 날때부터 장님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제는 모든 힘을 내려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로 미루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인 예수님께 주신 응답은 “약속된 그 일을 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십자가는 피할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다시 기드론 골짜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기드론을 건넌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부터 모든 권한을 박탈하셨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워 심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과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기드론 골짜기와 관련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기드론 골짜기는 다른 이름으로 ‘여호사밧의 골짜기’로 불리웠습니다. ‘여호사밧’은 르호보암의 증손자로 유다의 4대왕(르호보암이 1대)이었습니다(사울을 1대왕으로 할 경우 7대왕). 그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와가 심판하신다’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의 골짜기’의 의미는 ‘여호와와가 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로 들어가셨다가 로마 군대에 잡혀서 그 골짜기를 거쳐 다시 돌아 오시게 됩니다. 결국 기드론 골짜기는 세상의 죄를 지고 여호와의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 때에 ²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흠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³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생을 바꾸며 마셨음이니라...(중략)...¹¹ 사면의 열국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¹²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¹³ 너희는 낮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로다 ¹⁴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¹⁵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요엘 3:1-15).

종말론적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은 남아 있지만 그 심판은 이미 결정된 심판을 실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미 사형선고가 내려진 사람에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는 것을 떠올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이 세상 모든 권세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중에 죄의 권세는 무력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믿는 사람들을 송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골짜기를 건너며 예수님이 그 모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않고 기드론 골짜기를 몸소 건너가셨습니다. 이는 체포되기까지 시간을 끌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골짜기에 서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작정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많은 분들은 빌라도의 심판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요청으로 이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해 죽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의 요청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시는 모든 과정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어쩌면 기드론 골짜기는 우리들이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소 그곳을 건너가심으로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편한 장소를 택하신 예수님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1~9)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Ἰησοῦς)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로 가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σὺ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πέραν τοῦ χειμάρρου τοῦ Κεδρῶν)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κήπος)
그와 그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εἰς ὃν εἰσῆλθεν αὐτὸ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2절)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습니다 ("Ἰδὲ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τὸν τόπον.)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άκις συνήχθη Ἰησοῦς ἐκεῖ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3절) 그러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지닌 채 그곳으로 왔습니다 (ὁ οὖν Ἰούδας λαβὼν τὴν σπεῖραν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ιερέων καὶ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ὑπηρέτας ἔρχεται ἐκεῖ μετὰ φανῶν καὶ λαμπάδων καὶ ὀπλῶν.)
- (4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신 예수님이 (Ἰησοῦς οὖν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ἐξῆλθ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당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τίνα ζητεῖτε;)
- (5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나사렛 예수이다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가] 나다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그를 배반하는 유다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εἰστήκει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μετ' αὐτῶν.)

- (6절) 그가 그들에게 [그가] 나다'라고 말하자 (ὡς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γώ εἰμι.)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ἀπῆ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καὶ ἔπεσαν χαμαί.)
- (7절) 그러자 그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πάντων οὖν ἐπηρώτησεν αὐτούς· τίνα ζητεῖτε.)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οἱ δὲ εἶπαν·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 (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그]이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ὅτι ἐγώ εἰμι· εἰ οὖν ἐμὲ ζητεῖτε.)
 이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라 (ἄφετε τούτους ὑπάγειν·)
- (9절) 이는 그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ὃν εἶπεν)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다
 (ὅτι οὐκ ἀέδωκός μοι οὐκ ἀπόλεσα ἕξ ἀπάντων οὐδ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간 곳이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찾은 곳이기 때문에 유다도 잘 알고 있는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다가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가롯유다는 만찬 중에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공동체를 이탈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대적자(대제사장)에 의해 그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잡히기로 작정하신 듯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장소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틀림없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유다가 잘 아는 장소를 택해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그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습관으로 번역된 단어인 '에도스'(ἔθος)는 '이미 몸에 배인 습관 또는 관례나 전통'을 말합니다. 습관으로 번역한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늘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셨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늘 하시던 대로 그곳으로 가셨다는 말이지요.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곳에 자주 모였기 때문에 유다가 잘 아는 장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유다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만은 그곳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장소로 가신 것은 이미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즉,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주도 면밀하게 일을 진행하여 예수님을 체포하고 적법하게 사형에 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자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²²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 ²³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²⁴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²⁵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벧전 2:22-25).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여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몰라 보고 죽였다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안타까우며 말도 안되는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 무지한 사람들이 다름아닌 나였다고 깨닫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밀히 말해 대제사장들을 위시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 모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모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 십자가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귀를 어둡게 하여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게 하신 것이지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지신 일이 바로 ‘나’ 때문이라면 나는 지금 그 십자가로 인해 온전해져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온전한 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정말 모든 죄가 예수님 안에서 눈독듯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죄가 불쑥불쑥 드러나 그것으로 마음이 불안하신가요?

3절을 읽으십시오. 유다가 앞장서서 로마 군대(여기서 군대는 약 600명 정도)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지닌채 그곳으로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죽여 천여 명은 되어 보이는 군사들을 파견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마음 속으로 이미 예수님이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감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있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까지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많은 이적을 보여준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으라고 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로마군대,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유다는 3년간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온갖 이적을 다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런 체험은 그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했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이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신비한 현상을 추구하기도 하며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구원과는 제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그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나의 사건이 되어야만 그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사건이 바로 당신의 사건이

며, 바로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왜 아직도 자신의 죄나 실수에 그토록 힘들어 하며 그것을 스스로 씻으려 애를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을까요? 혹시 당신도 그런 사람들 중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닌지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8:1~9)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원문해석하기

- (1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Ταῦτα εἰπὼν Ἰησοῦς)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로 가셨습니다
(ἐξῆλθεν σὺν τοῖς μαθηταῖς αὐτοῦ πέραν τοῦ χειμάρρου τοῦ Κεδρῶν)
거기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ὅπου ἦν κήπος)
그와 그의 제자들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εἰς ὃν εἰσῆλθεν αὐτὸς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 (2절)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았습니다 ("Ἰδὲ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τὸν τόπον.)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서 자주 모였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ολλάκις συνήχθη Ἰησοῦς ἐκεῖ μετὰ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 (3절) 그러자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은 하인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들을 지닌 채 그곳으로 왔습니다 (ὁ οὖν Ἰούδας λαβὼν τὴν σπεῖραν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ιερέων καὶ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ὑπηρέτας ἔρχεται ἐκεῖ μετὰ φανῶν καὶ λαμπάδων καὶ ὀπλῶν.)
- (4절)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모두 아신 예수님이 (Ἰησοῦς οὖν εἰδὼς πάντα τὰ ἐρχόμενα ἐπ' αὐτὸν)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ἐξῆλθεν καὶ λέγει αὐτοῖς)
당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τίνα ζητεῖτε;)
- (5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σαν αὐτῷ·)
나사렛 예수이다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그가] 나다 (ἐγὼ εἰμι.)
그리고 그를 배반하는 유다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εἰστήκει δὲ καὶ Ἰούδας ὁ παραδιδούς αὐτὸν μετ' αὐτῶν.)

- (6절) 그가 그들에게 [그가] 나다'라고 말하자 (ὡς οὖν εἶπεν αὐτοῖς· ἐγώ εἰμι.)
 그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넘어졌습니다 (ἀπῆλθον εἰς τὰ ὀπίσω καὶ ἔπεσαν χαμαί.)
- (7절) 그러자 그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πόλιν οὖν ἐπηρώτησεν αὐτούς· τίνα ζητεῖτε.)
 그래서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이다' (οἱ δὲ εἶπαν· Ἰησοῦν τὸν Ναζωραῖον.)
- (8절) 예수님이 대답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εἶπον ὑμῖν)
 내가 [그]이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나를 찾고 있다면 (ὅτι ἐγώ εἰμι· εἰ οὖν ἐμὲ ζητεῖτε.)
 이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라 (ἄφετε τοὺτους ὑπάγειν·)
- (9절) 이는 그가 했던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ἵνα πληρωθῇ ὁ λόγος ὃν εἶπεν)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ὅτι οὓς δέδωκάς μοι οὐκ ἀπόλεσα ἕξ ἀπάντων οὐδένα.)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을 잡기 위해 온 사람들과 예수님 간에 오갔던 대화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그들과의 대화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쓰여져 있습니다.

- A: 당신들이 누구를 찾느냐?
 A': 나사렛 예수다
 B: [그가] 나다
 C: 그를 배반하는 유대 역시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B: [그가] 나다 라고 말하자
 A: 당신들이 누구를 찾고 있느냐?
 A': 나사렛 예수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롯 유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한가운데에 배치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차배열구조에서 가운데에 들어가는 내용은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전체 문장의 주제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부분에서 유다가 그들과 함께 한 사실을 한가운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이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에서 무엇보다 유다가 한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곧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공관복음의 기록은 요한복음과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었고 함께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인지 확인하고 체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⁷ 말씀하실 때에 열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과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⁴⁸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⁴⁹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⁵⁰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마 26:47-50).

마가와 누가 복음의 서술도 마태복음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유다가 그들과 함께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이 가롯유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유다로 표현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유다라는 말은 단지 유다 지파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유대 민족의 전체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남북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이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당하면서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유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강조한 것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의 유다가 아니라 민족 전체로서의 유다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보여줍니다. 즉, 이 부분에서 유다는 이미 ‘가롯인’ 유다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택하여 율법을 주고 훈련한 유대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¹¹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¹²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¹³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0-13).

특별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잡아 죽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그런 불신앙의 배경에는 인간들이 가진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쌓은 업적, 종교적 기득권을 하나도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이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사탄이라 부릅니다.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무조건 사탄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일행과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완전히 대립하는 모습으로서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적하여 서 있는 사람들은 로마 군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 그리고 유다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상징적인 이름인 유다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대적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던 유대인 전체라는 것을 요한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무슬림이니 불교니 하면서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야말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자기는 슬쩍 빠집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니까.’ ‘나는 십일조를 꼬박꼬박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나는 신학교를 나오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등등 자신이 예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면 우리 자신도 진리를 거역하고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있는 사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을 사탄이라 비판하지만 정작 자신도 그들과 동일한 대적자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혹시 당신은 하나님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우선시 하지는 않는지요? 교회 지도자들이게 잘 보이기 위해 봉사하고 헌금을 하지는 않았는지

요? 혹은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이르러 하지는 않는지요?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아 자신이 정말 예수님과 대적하는 편이 아닌 예수님 편에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8: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만 체포하고 제자들은 그냥 놓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당신이 나에게 주신 자 중에서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까’라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고 그러신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온 사상에 물든 제자들도 이 때 함께 체포해서 한꺼번에 화근을 말끔히 제거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은 제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들이 제자들에게 관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이 땅에 남겨두어 이들로 하여금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까닭이지요. 그런 연유로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보호했고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신변의 위해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